

IN HIS PRESENCE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삶의 주인이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때문에 그 안에 거함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6:9-10)"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한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약할 때 강함되시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비밀과 일상에서 보여주신 기적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자랑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친히 그 사랑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의 협업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 현재 협업하고 있는 팀과 협업을 넘어서 이 선교사가 그 팀에 전적으로 합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그 팀은 현재 언어조력자가 있고, 번역에 도움(특히 구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현재 저희는 현지인 언어조력자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다보니 진행이 많이 더디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는 일단 접어두고, 합류하여 그 팀의 번역을 먼저 진행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저희 팀동료와 함께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 것인것인양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동료도 같은 생각이기에 함께 기도하며 행정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합류하려는 팀의 방언 역시 같은 쭉방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와 70% 정도 유사한 방언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방언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그 팀과 함께 번역을 이어가기에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물론, 이후에 저희 방언에 좀 더 기회가 열리면 언제든지 저희 방언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곳에 힘을 모으려는 제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팀에 합류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외에 좀 더 많은 책임과 직무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휘관이시고 각 사람에게 알맞은 사역에 배치하심을 믿기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머물며 사역할 장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저기인들이 무비자로 한번에 30일 동안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지인들이 오히려 저희를 방문해서 사역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저기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해외여행이 좀 더 수월한 국제공항이 있는 제주도가 가장 좋은 대상지입니다. 또한, 당분간 저기 현지에서 사역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제주도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팀원들이 함께 모여 사역도 하며 훈련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많은 저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저희가 저기인을 접촉하는 데에



도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팀 동료와 함께 저희 팀 베이스를 제주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제주도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고, 저희가 살며 사역할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것 뿐이지 그곳 역시 또 다른 선교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떨림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합류된 팀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지인 언어 조력자와 함께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채 선교사가 그 언어조력자를 위한 케어를 담당해줬으면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당장 현지인과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영적인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채선교사는 다시 언어 공부를 시작했고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에서 좋은 지기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무리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왜곡되고 잘못된 틀에 맞춰있었다 보니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오히려 정상적인 일상이 낯설고 부담스럽게 되지는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도 모르게 굳어진 잘못된 습관의 틀이 생겼다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옷 입고 잃어버린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에 친숙해 지도록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때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어 온 길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시 추스립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는 주님 안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 현실이 되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 맞이하시며 새해에도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억해 주세요

-  성령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  합류하게 되는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새롭게 만나는 팀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며,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가정 집과 그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  하루 속히 여행이 자유로와져서 현지와의 오고감에 제약이 없도록
-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연락처

jsjl@pike34.net

good3j@protonmail.com

후원문의

한국: mfmem@hanmail.net

010.9227.1456

캐나다: 416.888.2262

